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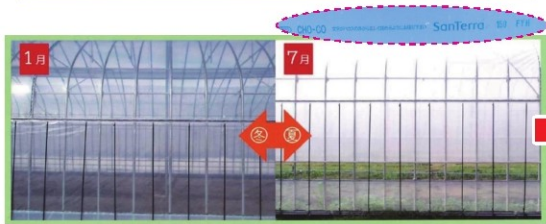
산란광 효과에다 차광·차열(적외선 차단) 최적화 딸기육묘+온도변화에 따른 카멜레온 필름까지 육묘엔 후아후아 네트, 재배엔 조광필름으로 고품질 무농약 딸기생산

“매번 고온 환경조건 하에서 딸기 육묘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모종생산이 어렵거든요. 농사의 반농사인 묘부터 탄실하게 길러야 되는데 이때 검은색 차광망보단 차광·차열(적외선 차단)에다 산란광 기능까지 겸비한 후아후아 네트가 아주 효과 만점이었으며 특히 생산 포장에선 저온 땀 필름이 투명, 고온 땀 불투명해지는 카멜레온 조광(調光)필름이 있어서 무농약 고품질 딸기생산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2월 중하순부터 온도 상승으로 인해 과(果) 자체가 물러지고 식감이나 당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품질저하로 치닫게 되는데 이 호찬농원 딸기는 타농가보다 50% 이상 단단하고 당도 역시 12° Bx 정도 유지하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것도 무농약 딸기를 생산하는데도 말이죠.” 충남 논산시 상월농협 유통팀 김해운 씨가 취재 중간에 불쑥 등장,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기 위해 일부러 왔다고 하면서 한 마디를 던진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본인의 이름(사진 촬영을 기꺼이 허락)을 걸고, 있는 사실만을 얘기한다며 자신 있게 덧붙여 말을 이어간다. “공동선별(공선) 시 작업자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딸기에요. 거의 파지(破紙) 딸기가 없는데 그 이유인즉 1차 현장에서 선

별해오는 게 완벽하고 2차 공선 시 기형과, 무름과, 꼭지 이상과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업이 수월하고 애지중지하게 특별히 선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욱이 수출딸기 샘플 보낼 때에도 제 몫을 톡톡히 한다고.

기사 첫 머리부터 농가 얘기보다 딸기 유통 담당자의 목소리를 먼저 담아낸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밀도 끝도 없이)… 고마웠다. 늘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선뜻 취재에 응해준 것도 그렇고 하우스 현장까지 반갑게 와 준 것 자체가 그랬다. 더욱이 배석열·박수진 부부와 허물없이 지낼 만큼 친하기까지 한다니, 어쨌든 고품질 생산된 좋은 딸기를 적극적으로 홍보 유통하는데 앞장서주기까지 하고 있으니깐, 꼭 복(福) 많이 받을 것이라. (중략)



저온기인 겨울이나 아침엔 투명해서 광 투과를 100% 받아들이는 반면 고온기 인 여름이나 낮엔 불투명해서 온도 하강으로 쾌적하게 하는 카멜레온 조광필름.

일반 필름과 조광필름(오른쪽)의 단순 비교. 3월 6일 11~12시경 바로 옆 농가의 필름은 투명하게 빛나는 대신 조광필름을 피복한 이 농장에선 벌써 불투명해져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차광율 60% 회색 후아후아 네트 설치 모습. 초경량 폴리에틸렌(PE) 재질에다 직조·열융착 방식 채택으로 뒤틀림 없이 5년간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원내는 질기고 튼튼함의 비밀, 열융착 제조 도식도.



육묘엔 후아후아 네트, 재배엔 조광필름 덕분에 4~5일 천천히 숙성되는 것도 무른 과 없이 단단한 딸기 생산의 한 요인이라고. 그래서 건조했을 때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원적외선 건조기에 2차 가공된 호찬농원 건조딸기. 무농약이라 급식 및 생형 등에 납품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첫 눈에 봐도 인교부부임을 확인 가능하며 딸기만큼 달달해 보이는 배석열·박수진 부부와 이 지역 딸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월농협 김해운 씨(사진 오른쪽)가 자리를 같이 했다. 김해운 씨도 들어가기 어려운 농장 인을 오늘 사진 촬영 때문에 공개했음을 사투 놀라워하며... 그만큼 무농약 친환경 딸기생산의 기본인 예방차원의 병해충관리의 척도가 바로 철저한 방역. 어떤 사람도 출입금지라고. 또한 5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친환경 병해충자제로 예방하는 게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취재 전날 (주)ARTS 김영호 이사의 급한 연락 한 통,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혀 일정을 미루자고 하기에...

그럼 아침 8~9시 일찍 하자고 통화 후 당일 김영호 이사는 새벽부터 부산에서 출발, 9시 전후에 만나기로 하고(매번 현장에 답이 있다며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는 김영호 이사의 대단한 열정). 서둘러 전주에서 논산으로 직접 차편을 마련, 농장으로 향했다. 하우스 안 농막에 임시 거처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적외선 건조 무농약 딸기를 이쁘게 선별 포장하느냐고 여념이 없던 박수진 씨가 반갑게 맞이해준다. 작년 10월 11~13일 (주)ARTS PO필름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한 유일한 홍일점이었다. 남편 배석열 씨는 커피 한 잔을 권하기에 앞서 몸에 좋은 홍삼즙액을 내놓으며 편안하게 맞이해주며 이것저것 딸기 관련 질문과 대답이 오고가기 20여분쯤. 김영호 이사도 마침 도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식 후 몸살 하지 않는 묘(畠)생산에 최적화-산관광 효과, 차광·차열(적외선 차단) 겸비 후아후아 네트

“작년 딸기 모종을 660㎡ 하우스 3동에서 직접 기르고 팔기까지 했는데... 올해 논산지역에서도 유난히 심했던 2화방 꽃대 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아 딸기생산에 차질이 많았거든요. 한테 저희 농장 딸기나 판매된 모종에선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었고 벌써

모종 선주문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배석열 씨가 첫 마디부터 자신만만하게 말문을 연다. 곧바로 박수진 씨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그런지 정식 후 묘들이 몸살(스트레스)을 하는데 전혀 그런 현상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한 여름철 고온기 때 육묘를 하다 보니, 사람도 힘든데 딸기 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타농가가 검은색 차광망을 사용할 때 저희들은 차광·차열에다 산관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후아후아 네트를 사용한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 660㎡ 하우스 3동에서 직접 재배하는 곳엔 온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필름 즉 저온엔 투명, 고온엔 불투명해지는 카멜레온 조광필름을 피복해서 재배한 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상월농협 유통팀 김해운 씨가 깜짝 현장 방문 후 얼마나 고품질 딸기 출하가 되고 있는지를 앞서서 확인시켜주었다.

조광필름과 후아후아 네트는 2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PO필름 전문업체인 (주)ARTS(대표 정두석, www.arts21.co.kr)가 수년간 연구 개발해온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다이아텍스사(社)에서 제품화한 것을 직수입하여 10년 전부터 고품질 시설원에 농가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진**